

이탈리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Task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Italy
-Focus on 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이 상 숙
(Lee Sangsuk)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7-3, 111-13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Italy, with a focus on 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Among the Italian universities that offer a Korean language major, Ca'Foscari University has shown the most growth,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Ca'Foscari University and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e most important being the establishment of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s that would allow Korean language majors to study the language in greater depth and help solve the problem of shortages of professional researchers. Ca'Foscari University is currently exerting great effort to open graduate programs for the Korean language, and expects to open a master's program in the near future in the hope of further develop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Italy. (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주제어 : 이탈리아(Italy), 한국어 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현황(Current Status), 과제(Tasks)

1. 들어가며

1950년대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이탈리아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창기에는 한국 영화 및 소설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에서 한국어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K-pop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이탈리아 내 한국어 교육 기관이 늘어나고, 대학에서도 학문으로서의 한국어 강좌 및 전공이 계속해서 개설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학문으로서의 한국어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듯 이탈리아에서 한국어 교육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유럽 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탈리아 실정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탈리아의 한국어 교육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객관화되어 있는 대학 정규 과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한국어 전공 현황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대학 중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탈리아 대학의 한국어 전공 현황

이탈리아 대학의 교육 과정은 학부 3년제, 석사 2년제, 박사 3년제로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어 12월까지 1학기, 2월부터 5월까지가 2학기로 운영된다.

현재 이탈리아 대학에 한국어 전공이¹⁾ 설치된 곳은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Università degli Studi di Napoli L'Orientale),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Spienza Università di Roma),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Università Ca'Foscari Venezia),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이며, 밀라노 대학교(Università degli studi di Milano)에는 ‘Language Medi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학부에 ‘한국어와 문화’ 강좌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볼로냐 대학교(Università di Bologna)에는 동아시아학 전공 석사 과정에 ‘동아시아 국제관계학(한국중심)’ 강좌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간헐적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기도 한다.²⁾

2.1.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강의를 시작한 한국어 교육 역사가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다. 1958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강좌를 시작으로 1969년 즈음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다.³⁾

2020년 현재 학부 과정과 석박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학부 과정 170명, 석사 과정 20명의 신입생을 받고 있으며 박사 과정은 개설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입학생이 없는 상태이다. 박병철(1996)에서 제시한 1991/1992학년도 12명, 1992/1993학년도 12명, 1994/1995학년도 10명이었던 신입생 현황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내 한국어 전공 규모가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2019학년도 학부 신입생이 160명, 석사 신입생이 1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최근 들어서도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한국어 전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1) 이탈리아 대학에 개설된 전공은 ‘Lingua Coreana(Korean language)’로 한국어 전공이다. 한국학 전공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이는 올바른 전공 명칭이 아니다.

2) 브레샤 카톨릭 대학교(Università Cattolica del Sacro Cuore di Brescia)에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양 언어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2018학년도 1학기 ‘한국어와 문화’ 강의를 필자가 담당했다.

3)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료에는 1969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한국어 전공 개설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개설 연도를 알 수 없다고 한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 있다.

한국어 전공 내 개설된 한국학 관련 과목은 학부 과정에 9개, 석사 과정에 3개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은 필수 과목이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이다. 2018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료와 비교해 보면 2년 사이에 학부 과정 개설 과목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⁴⁾ 개설 과목 중에서 한국어 관련 강좌는 ‘한국어 1, 2, 3’과 ‘한국어사’로 ‘한국어 1, 2, 3’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문법과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 강의는 주 1회(총 2시간) 전공 교수가 담당하고, 연습은 주 2회(총 4시간) 한국인 원어민 강사가 담당한다. 한국어 강의에 사용되는 주교재는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부교수인 Andrea De Benedittis (안드레아 데 베네딕티스) 교수의 ‘Lingua Coreana 1(2014)’, ‘Lingua Coreana 2(2015)’, ‘Lingua Coreana 3(2018)’이다.⁵⁾ 이 교재는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출판된 한국어 교재로 문법 설명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다. 부전공으로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총 4명의 교수(부교수 1, 계약교수 1, 원어민 강사 2)가 한국어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데⁶⁾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부교수 1명과 계약교수 1명이 이끌어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는 그동안 한국어 전공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 교수 임용, 새 강좌 개설 등으로 재도약을 하고 있다.

4) 2018년 작성 국제교류재단 나폴리 대학 개설 과목 :

학부 - 한국어 1, 2, 3, 한국 문학 1, 2 / 석사 - 한국어 1, 2 한국 문학

5) ‘Lingua Coreana 1, 2’ 필자와 Giuseppina De Nicola가 집필에 참여했으며, ‘Lingua Coreana 3’에는 Giuseppina De Nicola와 송미선이 집필에 참여했다.

6) 본고에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객원교수/초빙교수/교환교수 등과 같은 단기로 강의를 맡는 유동적인 인력은 교수진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1>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강좌 개설	1958년	
전공 개설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초반	
교수진	4명	
신입생	학부: 170명 / 석사 20명	
교과 과정 (학점)	학부	한국어 1(8), 한국어 2(8), 한국어 3(8), 한국 문학 1(8), 한국 문학 2(8), 동아시아 역사(8), 온라인 한국사(8), 동아시아 철학사(8), 한국어사(8)
	석사	한국문학(8), 한국어1(8), 한국어2(8)

2.2.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는 90년대 후반에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여, 2001년도에 문자와 철학학부 언어와 문명학과 내 세부 전공으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다. 현재 학부,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대학 내 한국어 박사 과정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이다.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에도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재학생이 없는 상태이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는 매년 석사 과정에 18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현재 1명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에 있다. 학부 신입은 전공별로 선발하지 않고 학과 단위로 선발하며, 1, 2학년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 전공과 부전공 그리고 교양 선택이 함께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기 때문에 한국어 전공자 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학기 말 시험 신청 시 전공과 부전공이 가려지는데 대학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20/2021학년도 1학년 한국어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 75명이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2018년 한국국제교류재단 현황에서도 한국어 전공생 수가 80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어 전공 신입생을 대략 80명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어 전공에 개설된 한국학 관련 강좌는 학부 과정에 12개, 석사 과정에 6개로⁷⁾ 이 중 한국어 관련 강좌는 학부 과정에 개설된 ‘한국어 및

7) 모든 자료는 2020년 10월 기준, 해당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와 해당 대학교 재직 교수들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번역 1, 2, 3'과 석사 과정에 개설된 '한국어와 문학'이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학부 과정에 번역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은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문법과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법 강의는 주 1회(총 3시간) 전공 교수가 담당하고 연습은 주 2회(총 4시간) 한국인 원어민 강사가 담당한다. 한국어 강의에 사용되는 주교재는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부교수인 Antonetta L. Bruno(안토네타 부르노⁸⁾)의 'Il coreano per gli italiani vol.1(2018)', 'Il coreano per gli italiani, vol.2(2019)', 'Il coreano per gli italiani, vol.3(2019)'이다.¹⁰⁾ 총 7명의 교수(정교수 1, 조교수 1, 계약교수 3, 원어민 강사 2)가 한국어 전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4명(교수 2명, 원어민 강사 2명)이다.

<표 2>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강좌 개설	1990년대 후반	
전공 개설	2001년	
교수진	7명	
신입생	학부: 80명(예상) / 석사 18명	
교과 과정 (학점)	학부	한국어 및 번역 1(12), 한국어 및 번역 2(12), 한국어 및 번역 3(12), 언어사(6), 언어학(6), 동아시아 역사(6), 동아시아 예술사(6), 한국 근현대사(6), 한국 문학(6), 동아시아 종교와 철학(6), 현대 언어교육(6), 한국 철학(6)
	석사	한국어와 문학 A(12), 한국어와 문학 B(12),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 정치와 역사(6), 동아시아 철학과 종교(6), 한국 철학(6), 한국 시각예술(6)

8) 이탈리아 대학 박사 과정은 한국과 다르게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이 없고, 매년 세미나식 수업이 진행되며 연구와 논문에 집중한다.

9) Antonetta L. Bruno교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탈리아어로 된 한국어 교재 'Corso di lingua coreana(2009)'를 집필했다.

10) 'Il coreano per gli italiani vol. 1(2018)과 vol. 3(2019)'은 Antonetta L. Bruno, Giovanni Volpe, Chung Somin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Il coreano per gli italiani vol. 2(2019)'는 Antonetta L. Bruno, Giovanni Volpe, Chung Somin, Oh Yoonjong이 참여했다.

2.3.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최근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대학교로 2017년 한국어 강의를 시작으로 2018년 ‘Mediazione linguistica nel contatto interculturale(통번역학과) 안에 세부 전공으로 한국어 전공이 학부 과정에 개설되었고 2020년부터 석사 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2020년 현재 학부 과정에 85명의 신입생, 석사 과정에 20명의 신입생이 선발된다. 2018년 전공 개설 당시 학부 신입생이 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한국어 전공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전공 개설 2년 만에 석사 과정이 개설된 것은 대학 내에서 한국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 통번역학과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3개 언어를 전공해야 하므로 타 대학과 달리 한국어 과정이 전공과 부전공이 따로 나뉘지 않고 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한국학 관련 개설 과목으로는 학부 과정에 ‘한국어와 문학 1, 2, 3’,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역사’, 석사 과정에는 ‘한국어와 문학 1’이 개설되어 있다. 개설 강좌 중 한국어 관련 강좌는 ‘한국어와 문학’으로 한국어와 문학을 한 과목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수업은 문법과 연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법은 주 1회(총 2시간) 전공 교수가 담당하고, 연습은 주 2회(총 4시간) 한국인 원어민 강사가 담당한다. 한국어 강의에 사용되는 주교재는 Andrea De Benedittis (안드레아 데 베네딕티스) 교수의 ‘Lingua Coreana 1(2014)’, ‘Lingua Coreana 2(2015)’이다. 현재 2명의 교수(연구교수 1, 원어민 강사 1)가 한국어 전공을 담당하고 있다.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는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와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와 함께 이탈리아 내 한국어 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표 3>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

강좌 개설	2017년
전공 개설	2018년
교수진	2명

신입생	학부: 85명 / 석사: 20명	
교과 과정 (학점)	학부	한국어와 문학 1(9), 한국어와 문학 2(9), 한국어와 문학 3(9),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역사(6/9/12)
	석사	한국어와 문학 1(9), 한국어와 문학 2(9)

이상으로 이탈리아 대학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대학교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위 대학들은 모두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은 모두 동일하게 문법과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적 지식만을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회화와 연습을 통해서 한국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모든 대학들이 학부 과정에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2, 3학년 학생들이 한국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 학기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 돌아온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의사소통 능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고 있다.

이탈리아 대학의 특징으로는 한국과 달리 수강 신청 제도와 출석 제도가 없다. 따라서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석한다. 또한 강의 수강과 관계없이 시험 신청을 하여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학점이 주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연기하는 등의 다양한 변동 요인으로 2, 3학년 재학생 수는 입학생 수와 달리 매년 매 학기 유동적이다.

3.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3.1. 한국어 교육 현황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유일한 대학으로 이탈리아 내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동양어학으로 유명한 대학이다. 1990년대 후반에 한국어 강좌를 시작으로 2010년에

언어와 문화학부 동양어학과(정식 명칭은 아시아와 지중해의 언어, 문화와 사회학과) 내 세부 전공으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고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였다.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한국어 전공은 3년제 학부 과정으로 총 6학기로 운영되며 아직까지 석사와 박사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2020년 현재(2020/2021학년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2010년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을 당시 신입생 수가 20-30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5배 가량이 증가하였다. 동일 학과 내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 신입생(각각 285명)과 비교해 보면 대학 내 한국어 전공 규모가 아직까지 중국어와 일본어에는 못 미치지만, 두 전공이 개설된 지 5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어 전공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부전공의 경우 수강 신청 제도가 없는 관계로 공식적인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2019/2020학년도에 부전공으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총 434명이다. 동양어학과 모든 언어 강좌는 일 년에 시험을 총 4회 시행하는데 성적 과락이거나 성적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3번까지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2019/2020학년도 한국어 부전공 시험 응시자 중 재응시가 없는 1, 2회 시험 응시자는 총 286명이었다.¹¹⁾ 한국어 부전공은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자만을 위한 과정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자 578명(신입생 기준) 중에서 280여 명 즉, 전체의 반 정도가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참고로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자를 위해 개설된 부전공으로는 아라비아어, 아르메니아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히브리어, 몽골어,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태국어, 티베트어, 터키어, 우르두어, 베트남어가 있다.

11) 언어 시험 총 4회 중 1, 2회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총 3번의 시험 응시 기회가 있다.

3.1.1. 교과 과정

한국어 전공 교과 과정은 학년별로 기초/필수/선택으로 나뉘어 있는데, 2020/2021학년도 신입생 교과 과정에 총 22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되는데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학기당 주 1회 2시간씩, 15주 동안 총 30시간씩 진행된다.

22개 개설 과목 중 전공 기초는 5개(중국어 1, 한국어 1, 한국 철학사 및 종교사 1, 이탈리아 문학, 영어 또는 프랑스어)이고, 필수는 9개(한국 문학 1, 한국 문학 2,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1, 한국어 3.2, 한국어사 1, 한국어사 2, 부전공/제2외국어), 선택은 8개(중국 예술사 1, 한국 철학사 및 종교사 2, 한국 예술사 1, 한국 근현대사, 비즈니스 관리의 원리, 한국 문학 3, 동아시아법, 국제 관계)이다.

한국어 전공 교과 과정 중 한국학 관련 과목은 14개로 한국어, 한국어사,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사를 다루고 있다. 한국어사, 문학, 역사는 시대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문학은 고전 문학, 근현대 문학, 시조 세 과정으로, 역사는 한국 고대사와 한국 근현대사 두 과정으로, 한국어사는 15세기를 기점으로 두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어 관련 개설 과목은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1, 한국어 3.2, 한국어사 1, 한국어사 2’이다.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한국어 전공은 3년 동안 매 학년 매 학기 한국어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한국어 1, 2는 각각 1년 과정으로 2학기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1학기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한국어 3은 학기제로 1, 2학기가 분리되어 진행된다.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수업은 문법과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법 수업은 전공 교수가 주 1회 2시간(학기당 총 30시간) 담당하고 연습은 한국인 원어민 강사가 1, 2학년은 주 3회 2시간씩(학기당 총 90시간), 3학년은 주 4회 2시간씩(학기당 총 120시간) 담당한다. 다른 과목들은 주당 2시간인데 한국어 수업은 주당 8-10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전공 내에서 한국어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내 다른 대학의 한국어 수업과 비교해 보면 문법 수업은 모두 주당 2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연습은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수업 시간

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더 많다.¹²⁾ 문법 수업은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문법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는 King, Ross and Yeon Jae-Hoon의 ‘Elementary Korean(2014)’, ‘Continuing Korean(2015)’, ‘Advanced Korean(2015)’이다. 연습은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강의와 두 개 반으로 나눈 분반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대규모 강의에서는 문법 연습을 하고 분반 수업에서는 통합형 수업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을 한다. 연습에 사용되는 교재로는 문법 교재 워크북과 new 서강 한국어이다.

부전공자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은 1년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이다. 부전공 한국어 수업은 대규모 강의로 문법 수업만 진행된다. 부전공의 경우 전공과 동일하게 ‘Elementary Korean(2014)’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전공자들이 다루기에는 내용이 어려운 편이어서 강의 담당 교수가 내용을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한다.

<표 4> 2020/2021학년도 신입생 교과 과정

학년	교과명	과정	학점	필수/선택
1학년	중국사 1	한 학기	6	기초
	한국사 1	한 학기	6	기초
	한국 철학사 및 종교사 1	한 학기	6	기초
	이탈리아 문학	한 학기	6	기초
	영어 또는 프랑스어 (둘 중 하나 선택)	한 학기	6	기초
	한국 문학 1	한 학기	6	필수
	한국어 1	일 년	18	필수
	중국 예술사 1	한 학기	6	선택
2학년	한국어사 1	한 학기	6	필수
	한국 문학 2	한 학기	6	필수
	한국어 2	일 년	18	필수
	부전공(제2외국어) ¹³⁾	일 년	12	필수

12)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 한국어 연습은 주당 4시간이다.

	한국 철학사 및 종교사 2	한 학기	6	선택
	한국 예술사 1	한 학기	6	선택
	한국 근현대사	한 학기	6	선택
	비즈니스 관리의 원리	한 학기	6	선택
3학년	한국어사 2	한 학기	6	필수
	한국어 3.1	한 학기	12	필수
	한국어 3.2	한 학기	12	필수
	한국 문학 3	한 학기	6	선택
	동아시아법	한 학기	6	선택
	국제 관계	한 학기	6	선택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학부 과정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에 비해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세분화가 잘 되어 있다. 김훈태(2009)에서 지적한 베네치아 대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국학이 부전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관심도에 비해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전공 개설 과목들을 보면 김훈태(2009)가 지적한 문제점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 한국학 역사가 오래된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대학¹⁴⁾ 학부 교과 과정과 비교해 보면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등 인문학 위주로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INALCO 대학교와 SOAS 대학교는 한국어, 역사, 문학,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으로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¹⁵⁾ 이것은 전공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한국어 전공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한국어에 중심을

13) 아라비아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히브리어, 몽골어,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태국어, 티베트어, 터키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14)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 한국학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학 강의가 개설된 대학은 프랑스에 19개, 영국에 28개이며, 이 중에서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프랑스에 7개, 영국에 5개이다. 프랑스 국립동양학 대학교(INALCO)는 1960년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고, 영국 SOAS 런던 대학교는 1989년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 두 대학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한국학을 대표하는 대학이다.

15) INALCO 대학교와 SOAS 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두고 있고, INALCO 대학교와 SOAS 대학교는 한국학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학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¹⁶⁾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통합형 수업을 하는 반면 두 대학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각 영역을 개별 과목으로 개설해 분리형 수업을 하고 있다.

3.1.2. 교수진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한국어 전공 교수진은 총 8명으로 6명의 교수(부교수 1, 연구교수 3, 계약교수 2)와 2명의 한국인 원어민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내에서 교수진 규모가 제일 크다. 김훈태(2009)에서 제시한 당시 한국어 담당 교수가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학 전문 인력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전공 교수진의 담당 과목 및 전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NALCO 대학교	SOAS 대학교
필수	구어 문법(1, 2), 문어 문법(1, 2), 문법(3, 4, 5, 6), 쓰기 연습(1, 2, 3, 4), 말하기 연습(1, 2, 3, 4), 회화(1, 2, 3, 4), 읽기와 쓰기(1, 2), 읽기와 말하기(1, 2), 한자, 한자어(1, 2, 3), 한국어의 역사와 문화, 한국학 방법론(1, 2), 한국사 개론, 한국 지리, 한국 문학(1, 2, 3), 한국 인류학, 한국의 제도,	기초 한국어, 한국 문화(1, 2), 동아시아의 문명, 읽기와 쓰기 동아시아학, 중급 한국어, 동아시아 제국주의, 한자(1, 2), 한국어 읽기 A, 한국어 읽기 B, 한국어 회화, 한국어 작문(1, 2), 한국 대본 읽기, 고급 한국어 읽기(1, 2), 동아시아사
선택	한국의 예술(1, 2), 한국 사회 정치사(1, 2), 한국의 지정학, 남한의 미디어, 번역(1, 2), 한국 문화사(1, 2), 한국 언론의 이해(1, 2), 한국의 종교, 한국의 종교	동아시아 문학의 성, 동아시아 영화, 한국 문학의 현대성, 한영 번역, 북한 1945, 읽기, 고급독해, 한국 전통적 계급과 사회

16) 대학별 필수 과목을 보면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의 경우 ‘한국어와 문학’이 필수 과목이고, INALCO 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역사, 지리,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SOAS 대학교의 경우에도 ‘한국어, 문화, 동아시아 문명, 한자, 동아시아 제국주의 등’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5> 한국어 전공 교수진

교수진	전공 및 학위	담당 과목
A	한국 문학, 한국어사 / 박사	한국 문학, 한국어사
B	한국사, 법학 / 박사	한국사, 한국 철학 및 종교사
C	일반 언어학 / 박사	한국어
D	한국학(철학) / 박사	한국 철학 및 종교사, 한국어
E	한국학(예술 및 고고학) / 박사	한국 예술사
F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 / 박사 수료	한국어, 한국 문학
G	일본어 / 석사	한국어 연습
H	심리 상담 / 학사	한국어 연습

총 8명 중 박사 학위자 5명, 박사 수료자 1명, 석사 1명, 학사 1명이며 전공은 문학, 언어, 역사, 철학, 예술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교수진 중에서 한국인이 6명으로 외국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흔하지 않게 한국인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한국어 전공임을 감안할 때 한국인 교수 비율이 높은 것은 굉장한 장점이지만 수업 사용 언어와 학교 행정 시스템 이해 부족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 수업을 할 때 대부분은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이탈리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인 교수의 경우 이탈리아 학생들에게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어를 또 다른 외국어로 배워야 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3.2.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

3.2.1.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이다. 지난 10년 동안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다양한 강좌 개설, 체계적인 교과 과정 운영, 전문 인력 확보 등으로 한국어 전공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학부 과정 이후의 심화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학 연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가장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학부 졸업생들일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는 졸업 후 다른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진학하거나 한국어를 더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은 석사 과정이 설치된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¹⁷⁾

현재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한국어 과정은 한국어 습득에 집중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어 전공을 한국어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뿐만 아니라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과 같은 한국어의 전반적인 이론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학적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부 과정에서 한국어 습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박사 과정에서 한국어를 학문으로서의 한국어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전공 석박사 과정 개설 여부는 카포스카리 대학교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지 않으면 앞으로 카포스카리 대학교 한국어 전공이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학부 과정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석사 과정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지만 가장 큰 전문 인력 확보 문제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머지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고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연구할 것을 기대해 본다.

3.2.2. 졸업 후 진로 지도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가 가진 또 다른 과제로는 졸업 후 진로이다. 매년 100명의 신입생들이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지만 이 중에서 졸업 후 한국 관련 직업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아직 없지만 지난 5년간 필자가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면서 본 바로는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전공과 관련

17) 동양어학과 내 타 전공 비교 언어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지만 한국어 전공 안에 설치된 석박사 과정은 아직 없다.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졸업생들 중에서 일부만 전공을 살려 이탈리아에서 한국어 전공 석사 과정에 들어가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한다.¹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탈리아 현지에 한국 관련 회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내 한국 기업들은 이탈리아인 한국어 전공생보다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한국 유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 회사에서 또는 한국 관련 일을 하기 원하지만 기회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역할은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졸업 후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가 한국어 전공 학생들에게 졸업 후 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학생들을 한국어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다.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학에서 연구자로 임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설치해 이탈리아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글 학교, 사설 어학원, 한국 문화원과 같은 비정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인 유학생이나 현지 교민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거나 비전공자들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한국어 교원을 배출한다면 많은 한국어 전공자들이 이탈리아 곳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한국어 전공생들이 졸업 후 한국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한국 기업과 협약을 맺어 대학생 인턴제를 시행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관련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8)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한국어 전공 졸업생들 중 2020/2021학년도 한국어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진학한 현황을 보면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 석사 과정에 20명,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석사 과정에 3명이다. 최근 2-3년 카포스카리 대학교 한국어 전공 신입생이 80-100명인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3.2.3. 전문 연구자 및 교재 부족

전문 연구자 부족 문제는 해외 한국어 교육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학 관련 분야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연구 인력은 전공 운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처럼 어느 정도 교수진이 갖추어진 대학이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 연구자 부족은 대학마다 각기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데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 문제와 한국어 교육 전문성에 관한 문제와 연결된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과 논문을 지도할 인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 8명의 교수진으로는 학부 과정과 석박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¹⁹⁾ 일부 대학에서는 적은 수의 교수진으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 체계적으로 다양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전문 연구자 부족 문제는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연결된다. 카포스카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담당하는 교수는 총 5명으로, 3명의 문법 담당 교수와 2명의 한국어인 원어민 강사가 있다. 한국어 문법 담당 교수 중 한국어 전공자는 단 한 명이고 나머지는 이탈리아어 전공자, 한국학 전공자이다.²⁰⁾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이탈리아 대학들은 모두 한국어 교육에 중심을 두고 전공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내에서 한국어 전공자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학 전공자들이나 언어학 전공자들이 한국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대학 관행상 연구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들

19) 동일학과 내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중국어 전공과 일본어 전공의 경우 학부 과정을 맡고 있는 교수진(원어민 강사 포함)이 20명 정도이고 석박사 과정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20) 현재 이탈리아 내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은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계약 교수 한 명뿐인데 아직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박사 수료).

은 정해진 강의 수를 채워야 하는데 한국학 강의만으로는 강의 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국어 강의를 한 두 개 맡게 된다.

원어민 강사의 경우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전공 여부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 원어민 강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공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면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원어민 강사도 전공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원어민 강사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전문가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한국 정부 및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탈리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전문 연구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전문 연구자들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제 막 이탈리아 대학에서 한국어 박사 전공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에서도 곧 석박사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탈리아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어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내 한국어 교육자들이 정기 학회나 모임을 통해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 중심의 학회나 모임이 없고, 진행되고 있는 학회나 세미나 등은 대부분 한국학 위주로 대학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한국어 교육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재 부족 문제도 해외 한국어 교육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King, Ross and Yeon Jae-Hoon의 ‘Elementary Korean(2014)’, ‘Continuing Korean(2015)’, ‘Advanced Korean(2015)’과 new 서강 한국어이다.

‘Elementary Korean(2014)’, ‘Continuing Korean(2015)’, ‘Advanced Korean(2015)’은 문법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대학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교재이다. 하지만 영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출판된 교재이다

보니 내용상 이탈리아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또 모든 문법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어 한국어를 영어로 배워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연습에서 사용하는 ‘new 서강 한국어’는 통합형 교재로 통합형 교육을 지향하는 카포스카리 대학교의 교육 과정과 잘 맞는 교재이지만 이 교재 역시 한국 생활을 중심으로 다국적 언어권을 대상으로 출판된 교재라서 내용 구성에서 이탈리아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문법 연습이나 영역 활동을 진행할 때 문화적 이해를 위해 배경 설명을 해야 하거나 활동 내용을 이탈리아 상황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실정을 고려해 카포스카리 대학교 교과 과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내외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을 2010년부터 총 4단계에 걸쳐 개발하였다.²¹⁾ 1, 2단계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바탕으로 활용하여 이탈리아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앞에서 언급한 Andrea De Benedittis(안드레아 데 베네딕티스) 교수의 ‘Lingua Coreana’와 Antonetta L. Bruno(안토네타 부르노)의 ‘Il coreano per gli italiani’이다. 이 두 교재는 이탈리아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지만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과 비교했을 때 교재 구성 특히 문법과 어휘 항목의 제시와 단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 내에서 한국어 교재 출판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탈리아 학습자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교재들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은 4단계에 걸쳐 개발되었는데,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2단계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 과정의 범주와 항목,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3단계에서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표준 교육 과정을 보완하고 4단계에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변이형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 내용을 세목화하였다.

4.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1958년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가 시작되어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시에나 외국인 대학교 순으로 한국어 전공이 설치되었고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를 제외한 3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2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올해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지 10년이 되었다. 부전공에서 전공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전공 개설 초기 20-30명에 불과했던 신입생이 100명으로 늘어나고, 2명이었던 교수진이 8명으로 늘어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이것은 대학과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이제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이다. 학부 과정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대학과 한국어 전공 교수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숙·이정희(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새국어생활 28-2, 국립국어원, 49-71쪽. Kim, J. S. & Lee, J. H.(2018), Kukje Tongyong Hankukeo Pyojun Kyoyukkwajeongui Kuseongkwa Naeyong(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Contents), *Saegukeosaenghwal(New Language Life)*, Vol. 28-2, pp. 49-71.
- 김창구(2012),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 교육과정, 교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6-2,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7-44쪽. Kim, C. K.(2012),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s universities, focusing on curriculum, teachers and student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Vol. 6-2, pp. 27-44.
- 김훈태(2009), 이탈리아 韓國語 教育의 現況과 課題: 베네치아대학을 中心으로, 어문연구 3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65-486쪽. Kim, H.T.(2009), Situation and Obj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Italy,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Vol. 37-4, pp. 465-486.
- 박병철(1994), 이탈리아의 한국학 연구, 국어교육 8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77-200쪽. Park, B. C.(1994), A Study on the Korean Studies in Italia,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83, pp. 465-486.
- 박시영(2018), 유럽어권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연구: 독일어권, 이탈리아어권, 프랑스어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ark, S. Y.(2018), A study on the usage pattern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of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learners in Europe: focused on German, Italian and French speaking,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손호민(1990),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6-1, 이중언어학회, 19-79쪽. Shon, H. M.(1990),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Bilingual Reserch*, Vol. 6-1, pp. 19-79.
- 연재훈(2001), 유럽 지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이중언어학 18-1, 이중언어학회, 381-401쪽. Yoen, J. H.(2001), The Present Sta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Universities in Europe, *Bilingual Reserch*, Vol. 18-1, pp. 381-401.
- 이지훈(2018), 프랑스어권의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과제: INALCO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7-96쪽. Lee, J.H.(2018), Current Status and Tasks of Korean Textbook

in Franc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2018, pp. 87-96.

한정한(2020),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엘터대학교(ELTE) 한국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517-540쪽. Han, J. H.(2020), Current Status and Tasks of Hungaria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as foreign language*, Vol. 56, pp. 517-540.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n Foundation, <http://www.kf.or.kr>)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Università degli Studi di Napoli L'Orientale, <http://www.unior.it>)

로마 대학(Spienza Università di Roma, <https://corsidilaurea.uniroma1.it>)

베네치아 대학(Università Ca' Foscari Venezia, <https://www.unive.it>)

시에나 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 <https://www.unistrasi.it>)

이 상 숙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한국어 전공 계약교수

Dorsoduro 3246, 30123 Venezia, Italy

전화번호: +39 3455280738

전자우편: sangsuk.lee@unive.it

투고일: 2020. 11. 12.

심사일: 2020. 11. 21.

게재확정일: 2020. 12. 04.

이탈리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 상 숙(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본 연구는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어 전공이 설치된 대학 중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질적, 양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석박사 과정 개설이다.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면 한국어 전공자들은 더 깊이 있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 나아가 전문 연구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베네치아 대학은 한국어 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석사 과정이 개설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탈리아 내 한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이탈리아(Italy), 한국어 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현황(Current Status), 과제(Tasks)

